

음악의 영향력 (2) ❁

<< 가사에 담긴 함정 >>

'말'(언어)은 어떤 힘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충격을 받기도 하고,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합니다. 말 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이 말에다 우리의 감정까지 움직이는 음악이 덧붙여지면 그 힘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듣는 음악, 따라서 부르는 음악을 선택할 때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중가요는 그런 면에서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는 음악입니다. 많은 수의 대중가요는 그 가사 내용이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주제 속에 담겨져야 할 희생이나 인내 같은 것은 무시한 채 지나치게 감각적이고 쾌락적으로만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그저 마음에 들었다가 싫어지면 언제든 지 내팽개칠 수 있는 정도의 값싼 것으로 표현할 경우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진 음악을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면 그 음악은 우리의 지성과 의지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끼쳐 결국 우리를 그 가사 내용처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구에서 몰려들어 오는 수많은 현대 음악들은 멜로디나 리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정서를 파괴하고 충동질하는 힘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더욱 무서운 것은 그 음악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진 내용(가사)입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가는 여러분께서도 이미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마약, 간음, 강도, 폭력, 자살을 찬미하고, 인생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내키는 대로 살아가라고 부추기는 노래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서구의 현대음악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며, 사탄을 찬양하는 가사내용을 수없이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사야 어떻게 어차피 못 알아 들으니깐 다만 음악만을 즐길 뿐이죠" 하기도 합니다. 가사를 못 알아 듣는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의 음악에 몸을 흔들고 즐겨워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그 노래에 나도 동의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죽었다. 내가 곧 신이다. 하나님은 꺼져라"라는 내용에 몸을 꼬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어 노래일수록 우리는 그 가사 내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독인지 유익한 약인지 모르면 차라리 먹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최용덕/ 종합문화선교 찬미 대표간사.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발행인.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 새벽나라 」제공

<http://isena.com/>